

화북공업지역 재정비 절차 완료 ‘초읽기’

도·제주시, ‘지구단위계획(안)’ 의견 조율 진행
도 “사업 최종 결정·고시, 올해말쯤 이뤄질 전망”

제주시 화북공업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입안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북공업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달 20일 제주시에 전달했다. 이는 제주도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관할 행정사인 제주시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다.

양 기관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기간 화북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용역도 임시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 화북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공개했다.

당시 용역의 목표로 주변 주거지 확장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입주 업종 기준을 마련하는 등

화북공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보행환경 개선, 화북공업지역 내부 연결체계 구축, 공원·녹지체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제주도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안)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큰 틀은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달 중 제주시와 의견을 공유한 뒤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입안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임시 중단됐던 용역을 재개하고 각종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현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사업의 최종 결정·고시 시점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두고 제주시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사업 최종 결정·고시는 올해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각종 심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456@ihalla.com



(주)청년제주가 대학생들과 함께 도서 지역 해양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방인’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2> 사단법인 청년제주(하)

도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역사·문화탐방 사업 추진
“제주사회에 대한 이해와
교류 통한 소속감 향상 초점”

(사)청년제주가 제주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청년제주는 오는 10월까지 도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방인에서 이웃으로(정착 이주민 역사문화 탐방)’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한 관광 체험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주를 삶의 터전으로 이해하고, 지역 청년과 교류하며 제주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정착 주민 40명과 제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 5명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교류할

기회가 부족해 심리적 고립을 겪거나 학업을 마친 뒤 제주를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사업 추진 배경이 됐다.

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을 ‘글로벌 서포터즈’로 양성하는 과정부터 시작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외국어와 제주 역사·문화 교육을 이수한 뒤 유학생들과 팀을 이뤄 통역과 문화해설, 생활 안내 등을 맡는다. 단순히 탐방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넘어 유학생들이 제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역사·문화 탐방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관덕정과 고씨주택, 제주돌문화공원, 제주해녀박물관 등 제주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주요 거점을 찾아 전문 해설을 듣는다. 이를 통해 제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탐방 이후에도 교류는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유학생과 지역 청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간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직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신주원 (사)청년제주 이사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주를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돕고, 지역 청년과의 교류를 통해 상생하는 글로벌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그자 <제작 지원=제주특별자치도청>

서귀포 병원동행 서비스 어르신 만족도 ‘최상’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시행과 관련, 서귀포지역 신청자 5명 가운데 1명이 특화사업인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귀포지역 의료·요양 통합돌봄 신청자 746명 중 어르신 161명(21%)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서귀포시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뢰하면 매월 1회 동행매니저가 돌봄택시를 이용해 거주지에서의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검사, 수납,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동행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교통비)은 1200원~4000원이다.

시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들은 차량(돌봄택시) 지원과 동행매니저의 동행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지속적인 이용을 희망했다. 병원 방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크게 덜어주는 효과도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최근 태풍 간접영향으로 모래 등이 쌓이며 물길에 막히자 관광명소인 쇠소깍(오른쪽)이 호수처럼 지형이 변해버렸다.

강경민 작가 제공

‘호수’된 관광명소 쇠소깍에 화들짝

최근 태풍 간접영향으로 모래·자갈 밀려와 물길 막혀
주민들 “처음 보는 일... 장기적인 환경대책 마련해야”

“간혹, 쇠소깍 일대 중간 중간에 막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소금막(서쪽)과 우금(동쪽) 사이에 모래가 쌓여 이어지면서 (민물과 바닷물이 오가는)물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처음입니다.”

12일 하호마을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하호동에 위치한 쇠소깍 일대의 소금막과 우금 사이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돌핀’ 등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많은 모래와 자갈이 밀려와 쌓였다. 이로 인해 호돈전의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

수역인 쇠소깍 일대에 물길이 끊기며 호수처럼 지형이 변했다.

이에 12일 한삼옹 하호마을회장은 “최근 연이어 태풍이 발생하면서 대조기(조수 간만의 차가 커져 만조 때 해수면이 특히 높아지는 시기) 때 우금과 소금막 등 쇠소깍 경계선 일대가 완전히 막혔다”며 “그전에는 중간 중간에 막혀도 민물과 바닷물이 들고날 정도는 됐었는데, 이번처럼 전체적으로 막힌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에 “쇠소깍이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명소로서, 오랜 시간 물이 갠채 냄새가 나고 죽은 물고기가 떠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중장비를 동원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길을 만들어 민물과 바닷물이 오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민 A씨는 “호돈전을 마주하고 갈등의 골이 있는 하호동과 하례리에 좁혀진 보기 힘든 소금막과 우금이 태풍의 영향으로 이어져 하나가 됐다”며 “50평생 처음 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길 내기 반복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천연보호구역에 걸맞은 장기적인 환경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금탁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당 : 금융채권 매도 상당(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